청나라 궁중의 사계절——황실 생활과 문화

고대 중국에서는 황제가 하늘의 명을 받아 통치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군주라면 모름지기 하늘의 뜻에 따라 때에 맞춰 나라를 다스리고자 천체 관측을 바탕으로 정확한 역법을 마련하고 달력을 반포하는 일에 힘썼다. 일상생활과 각종 행사도 계절의 변화에 맞췄다.

이 전시에서는 사계절을 따라 청나라(1644~1911년) 황제의 분주한 한 해를 살펴본다. 계절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따라가다 보면 당시 궁중의 경제와 정치, 군사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과 문화의 다양한 모습도 엿볼 수 있다. 전시는 청나라 궁중에서 사용한 역법 소개로 시작한다. 봄에는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고 농경과 길쌈에 관한 의례를 치렀다. 여름이 되면 더위를 피해 열하(熱河, 현재 중국 허베이성 청더 일대)에 있는 피서산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황제는 이곳에서 변방의 왕족과 귀족을 접견했다. 이러한 만남은 청나라 궁중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가을에는 황실 사냥터인 목란위장으로 이동해 군사 훈련을 하고 무예를 연마했다. 겨울에는 설을 맞아 새해의 복을 기원했다.

이 전시는 홍콩고궁박물관과 고궁박물원이 공동 주최한다.주최하고,
OLI 건축설계사무소는 전시의 예술 및 디자인 방향을 제시했다.

계절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

농사철과 명절 날짜 등 공동체의 주요 일정을 정하려면 정확한 달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천체를 관측해 역법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달력을 제작해 반포하는 일은 군주의 권위를 상징했다.

명나라(1368~1644년) 말기에는 역법을 개정하기 위해 역국(曆局)을 설치했다. 다만 기존의 역법과 서양에서 도입한 새로운 역법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었다. 강희제(재위 1662~1722년)는 중국 역사상 천문과 역법 계산에 정통한 유일한 황제였다. 《청사고(清史稿)》에 따르면 강희제는 천문과 역산의 이치를 직접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천문 관측기구 일곱 종을 제작했으며, 해와 달 및 별의 움직임을 각도의 분·초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했다. 강희제는 명나라 말부터 이어진 역법 논쟁을 끝내고 서양의 수학과 천문학을 바탕으로 만든 시헌력(時憲曆)을 다시 시행했다. 시헌력의 원리는 오늘날 세계 각지의 중국계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달력의 기초가 되었다. 이 달력을 흔히 '음력'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해와 달의 움직임을 함께 고려하는 '태음태양력'이다. 청나라 궁중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자금성의 정문인 오문(午門)에서 성대한 의식을 열고 이듬해 달력을 반포했다. 이렇게 반포한 달력은 청나라 사회에서 한 해의 주요 활동을 계획하는 기준이 되었다.

봄:농경과 길쌈

농업과 양잠은 예로부터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산맥이었다. 역대 왕조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 의례를 거행했다. 그중에서도 황제가 도성 남쪽 교외에서 직접 밭을 갈고 황후가 북쪽 교외에서 누에를 치는 의례가 특히 중요했다. 청나라 황실에서도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려면 농업과 양잠이 필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옹정제(재위 1723~1735년)는 여러 차례 농사의 신을 모신 선농단(先農壇)을 찾아 제사를 지내고 직접 쟁기질을 하며 농사를 장려했다. 효현황후(1712~1748년)도 건륭 9년인 1744년 음력 3월에 양잠의 신을 모신 선잠단(先蠶壇)에서 제사를 올리고 누에치기가 잘되기를 기원했다. 또한 음력 2월 화조절(花朝節, 꽃을 기리는 명절)에는 화신(花神, 꽃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며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고 풍년을 기원했다.

남성이 농사짓고 여성이 길쌈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은 송나라(960~1279년)에 이르러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었다. 그림에는 시문을 곁들여 농사와 길쌈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농업과 양잠 기술을 널리 알렸다. 청나라 궁중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경과 길쌈 장면으로 장식한 다양한 기물도 만들었다. 건륭제(재위 1736~1795년)는 청의원(清漪園, 지금의 이화원)에 경직도(耕織圖)를 주제로 한 공간까지 조성해 황실 정원 안에 농사와 길쌈의 모습을 재현했다.

여름: 피서

베이징의 여름은 무덥기로 유명하다. 18세기 초부터 청나라 황제는 대개 음력 5월부터 9월까지 열하의 별궁에 머물며 더위를 피했다. 이곳이 바로 피서산장(避暑山莊)이다. 강희제(재위 1662~1722년)는 이곳의 지세가 높고 탁 트였으며 공기는 맑고 연무가 없다고 했다. 또 수려한 봉우리가 사방을 둘러싸고 맑은 호수는 십 리에 달해 상쾌한 기운이 감돈다고 찬탄했다. 그야말로 여름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피서산장은 자금성 밖에서 정치가 벌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황제는 이곳에서 상소문을 검토하고 대신을 불러 국정과 군사 문제를 처리했다. 동맹 관계에 있는 왕족과 귀족도 이곳에서 접견했다. 1755년 건륭제(재위 1736~1795년)는 준가르 평정을 기념하여 이곳에서 몽골 귀족에게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다. 1780년에는 제6대 판첸 라마 롭상 팔덴 예셰(1738~1780년)가 건륭제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피서산장을 찾았다. 1789년에는 안남(安南, 지금의 베트남) 사절단이 열하를 찾아 조공을 바치고 황제를 알현했다. 1793년에는 건륭제가 이곳에서 영국 사절 매카트니 경(1737~1806년)을 접견했다. 이처럼 피서산장은 청나라를 지배한 만주족이 한족, 몽골족, 회족, 티베트인 등 동맹 세력과 교류하는 장소이기도 했다.

가을: 사냥

가을이 되면 청나라 황제는 피서산장에서 북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목란위장(木蘭圍場, 황실 사냥터)에서 대규모 사냥을 벌이곤 했다. 만주 팔기군이 진영을 지키고 몽골 귀족이 황제를 수행하는 이 행사를 '목란추선(木蘭秋獮, 목란의 가을 사냥)'이라 불렀다. 1683년부터 1817년까지 135년 동안 청나라 황제는 수행원과 함께 이곳에서 100차례 가까이 사냥에 나섰다. 한 번 사냥을 시작하면 약 한 달 동안 머물렀다.

목란추선은 대규모 군사 훈련이자 국가 의례였다. 사냥으로 무예를 단련하는 것은 만주족의 오랜 전통이었다. 건륭제(재위 1736~1795년)는 평소 사냥을 소홀히 하면 만주 병사가 안일한 생활에 익숙해져 말 타고 활 쏘는 솜씨가 점차 무뎌질 것이라고 여겼다. 대규모 사냥에는 수천 명이 참여했다. 먼저 포위망을 넓게 치고 그 범위를 좁혀가며 사냥감을 몰아넣은 뒤 사냥을 시작했다. 사냥이 끝나고 남은 동물은 놓아주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기마술과 활쏘기 실력은 물론 왕족, 귀족, 대신 및 팔기군 병사가 작전을 세우고 힘을 합치는 능력까지 시험했다. 한편 목란추선은 몽골 여러 부족의 지도자를 후하게 대접하며 우호 관계를 다지는 기회이기도 했다. 건륭제는 목란추선을 정식 국가 의례로 제도화하고 1741년에 첫 추선 대전을 거행했다. 재위 기간 내내 거행한 횟수만 해도 40차례가 넘는다.

겨울: 새해맞이

설은 한 해를 대표하는 명절 중의 명절이었다. 청나라 궁중은 음력 12월 초하루부터 이듬해 2월 초이틀까지 설맞이 행사로 분주했다. 복을 기원하는 장식품으로 궁궐을 꾸미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황족과 가까운 대신을 초청하여 연회를 열고 친목을 다지는 등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따라 흥겨운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엄숙하게 의례를 치르기도 하였다.

청나라 궁중에서는 해마다 음력 12월 24일에 등을 걸고 이듬해 2월 3일에 거두는 풍습이 있었다. 이 기간을 등절(燈節)이라 불렀다. 자금성의 건청궁과 황극전 일대에는 수백 개의 등이 걸리기도 했다. 궁등은 대개 위쪽에 보개(寶蓋, 장식 덮개)를 얹고 옆과 아래에는 술을 늘어뜨려 화려하게 꾸몄다. 옹정제 재위기(1723~1735년)부터는 원명원(圓明園, 베이징의 황실 정원)에서 대규모 등 축제를 열었다. 불꽃놀이와 연희 공연이 펼쳐지고 연회도 열렸다. 각종 기물과 의상에도 등롱무늬를 넣었다. 중국어에서 등롱의 '등(燈)'은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 풍년을 이룬다는 '오곡풍등(五穀豐登)'의 '등(登)'과 발음이 같아 등롱을 풍년을 기원하는 길상 상징으로 여겼다. 등롱 장식은 봄에 농업과 양잠을 장려하고 한 해의 끝에는 풍성한 수확으로 창고를 채우는 사계절의 순환을 상징했다.